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법정서 가린다

평가표 유출 혐의 전 광주시 국장 오늘 첫 재판
건설사 잇단 압수 수색...수사 범위 확대 전망도

광주시장이 마비될 정도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각종 의혹을 가리는 첫 재판이 열린다.
1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정상 전 광주시 환경 생태국장(현 광산부구청장)의 첫 공판이 11일 오전 10시 10분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박 남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상급자들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 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로 기소 됐다.
이 전 국장은 지난달 1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으며, 법원에 한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운영렬 감사 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이 전 국장과 공모해 우선협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광주시청을 두 차례, 광주도시 공사를 한차례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달 19일에는 광주시 정부특별보좌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1일에는 민간공원 2단계 1지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주)한양 광주사무실을, 지난 4일에는 2지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했고 일부 계약 점수가 잘못 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재 공모 절차 없이 재평가를 통해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서 제2차 강호축 발전포럼 제2차 강호축(강원~충청~호남) 발전포럼이 10일 오후 목포시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시중 충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종식 목포시장,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정호시 충북연구원장, 분야별 전문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 17개 시도 중 교통사고 가장 불안

목포·광주 동구 범죄분야 가장 취약한 기초지자체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공개

전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교통사고 분야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조사됐다. 목포와 광주 동구는 5년째 범죄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가 10일 발표한 ‘2019 전국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전남의 ‘교통사고 안전지수’는 5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과 함께 가장 낮았다.
지역안전지수는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안전수준을 점수화한 것으로, 행안부가 지난 2015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1등급이 가장 안전하고 5등급에 가까울수록 취약하다는 의미다.
전남의 경우 5년 연속 교통사고 부문에서 5등급을 기록, 가장 불안한 곳으로 꼽혔다. 전남도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 집중적으로 전개하는데도 지수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도로면적당(k㎡) 교통단속 CCTV 대수 증가율이 30%에 달하며 9개 도 지역 중 가장 높고 사망자도 14%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안전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화재·

감염병 분야도 4등급을 받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생활안전 분야는 3등급, 범죄·자살 분야는 2등급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나주·강진·영암군이 교통사고 분야 5등급을 받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고 화재 분야는 영광, 범죄 분야에서는 목포·장흥·영광의 안전지수가 5등급을 받았다. 목포는 범죄 분야에서 5년 연속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곡성은 교통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5등급)을 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등급으로 개선 폭이 컸고 보성도 감염병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등급이 올라 안전지수 개선에 대한 자치단체 의지를 엿볼 수있었다는 게 행안부 분석이다.
신안은 5년 연속으로 범죄 분야 안전지수가 1등급을 받는 ‘안전한 지역’에 올랐다. 무안은 생활안전 분야에서 5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광주는 3개 분야(교통·화재·감염병)에서 2개 등급 이상을 개선하는가 하면, 화재(3→1등급), 감염병(4→1등급) 분야는 1등급으로 상승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등급(4.5등급) 안전지수가 없는 유일한 자치단체로 꼽혔다.
광주 동구는 5년 연속 범죄 분야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불안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광주 광산구는 교통사고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식 출범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10일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보건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역 현황에 기반을 둔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지원과 거점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지역보건의료 조사·연구 등을 통한 정책 개발 및 보건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전남도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의료자원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부족한 공공보건의료 조직 기반과 전문

성을 강화해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정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준비해왔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단장을 위촉했으며, 공개모집으로 연구원과 행정요원 3명을 채용했다. 단계적으로 책임연구원 등 3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출범식 후에는 도민의 건강 문제를 공유하고 도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넓혀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의의와 발전 방향, 전남도의 건강 형평성 등에 대한 출범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민주당 광주시당, ‘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시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0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시의회 나현(비례대표)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전원 합의로 나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나 의원은 정계 사유가 명시된 심판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

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한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 의식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보좌관의 급여 명목으로 내야 하는 돈(매달 80만원)을 채용한 보좌관으로부터 돌려받아 물의를 빚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양성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GV1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활성 대조, 이중 눈가림, 평행 설계, 다 기관, 3상 임상시험

1. 임상시험의 목적

본 연구는 양성전립선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GV1001 또는 프로스카®정(피나스테리드 5mg)을 투여한 후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2. 임상시험의 방법

- GV1001 0.56mg + 프로스카®정 위약 군 또는 GV1001 1.12mg + 프로스카®정 위약 군 또는 GV1001 위약 + 프로스카®정 군에 1:1:1로 무작위 배정됩니다.
- 참여 기간은 도입기(4주), 치료기간(24주)으로 총 28주입니다.
- 임상시험 동안 총 16회 방문(선별검사 방문 포함)을 합니다.
- 방문 시 활력징후, 신체검사, 실험실적 검사, 전립선 관련 검사, 설문지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기준

- 만 50세 이상 남성으로 양성전립선비대증의 임상적 징후나 증상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
- 과거 혹은 현재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지 않은 환자
- 전립선이나 방광 혹은 골반 관련하여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았고 양성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침습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 기타 선정 기준은 외래 방문 시 선별검사를 거쳐게 됩니다.

4. 예측 가능한 부작용

- **GV1001:** 주사부위에서의 홍반, 쓰라림, 통증, 위장관 질환, 발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프로스카®정:** 위장장애, 발기부전, 성욕감퇴, 어지러움 등이 있습니다.
- ※ 상기 부작용 외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참여 기관 정보

임상시험조정기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비뇨의학과 이경섭 교수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연락처: 054-770-8265)

※ 상기 기관 외 22개 기관 참여 예정

6. 참여문의

임상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시험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콜센터 1800-1252

의뢰자 젼백스엔카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17 (Tel. 031-708-5566)

시험대상자 모집 원의 광고문_V1.2_20190717

순천 낙안읍성·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을 ‘한국관광의 별’ 선정

순천 낙안읍성과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가 올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한국관광공사와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상식을 갖고 낙안읍성, 장흥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남성그늘 예소 등 7개 관광자원을 선정했다. .
한국관광의 별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선정됐다. 올해부터 시상체계를 본상과 특별상으로 개편했다.

순천 낙안읍성과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본상을 수상했다.
순천 낙안읍성은 국내 최초로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제302호)로 지정된 곳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이 거주하는 유·무형의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관광명소로 인정받았다.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는 관광객자를 위한 배려가 충분한 관광지로 인정받았다.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을 활용한 치유의 숲으로 조성됐다. 억불산 정상까지 뻗뻗한 편백나무(100ha) 사이로 조성된 완만한 경사로의 ‘말레길’이 유명하다.

이밖에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 친구들의 여행기를 담은 MBC 에브리원의 프로그램 ‘어서와-한국은 처음이지?’는 한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남성그늘 예소는 대중문화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에 앞장선 노력을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